

제 12 권 신령한 마음

1.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출처: *From Horae Homileticae: Romans, Vol. 15* (London: Holdsworth and Ball, 1833), 200-202.

저자: 찰스 시므온 (1759-1836): 영국 국교회의 교구 목사; 영국 잉글랜드 버크셔주 레딩에서 출생

역자: 박기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6).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는 수단과 관련하여 크게 속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과 정욕을 구하며 그 안에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다. 그들은 신앙을 우울하고 지루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잠 13:15). 반면에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즐거움이 있다(잠 3:17).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8장 6 절의 바울의 증거는 명확하고 분명하다. 그의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 속고하게 한다.

1) 작용의 측면에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영향을 주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들의 마음에는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것들로 이끈다. 이 두 생각은 그 생각을 주관하는 서로 다른 두 성향이 있음을 말한다.

각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다스리는 성향에 맞는 대상에 고정된다. 각 생각은 자주, 열렬히, 그 대상을 향하며 만족을 느낀다. 육신의 성향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쾌락과 돈과 권력과 기타 허무한 세상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반면 영적인 성향에 이끌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영혼과 관련된 것들을 마음에 두게 된다.

두 성향의 차이는 애착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얻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얻는 수단을 찾으며, 얻게 되면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만일 그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면 두려워한다. 또한 그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을 혐오하며, 그것을 잃게 되면 슬퍼한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인 것에 작용하며, 영의 생각은 영적인 것에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애착에 관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 3:2)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흥정역은 "생각하고"를 affection- '애착' 으로 번역하였다. 즉, "위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 역주)

두 성향의 차이는 우리의 행동의 목표와 목적에도 영향을 끼친다. 육신적인 사람은 오직 육신의 동기만으로 행할 수 있다. 그는 영적인 사역을 할 때도 육신의 목적을 갖는다(스

7:5-6). 이와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동기에 따라 행한다. 그는 세상적인 일들조차 영적인 관점을 갖고 행한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전 10:31).

이 두 성향의 차이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각각 가져온다.

2) 결과적인 측면에서

육신의 성향이 가져오는 결과는 측량할 수 없이 끔찍하다. 육신의 성향이 우리 안에서 우세할 때 우리의 삶은 빈곤해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육신이 지배하는 상태는 그 자체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이다. 게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종결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으로써 결코 바뀔 수 없다(갈 6:7). 모든 만사가 반드시 이 원칙을 따른다.

영적인 성향이 가져오는 결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 영적인 성향이 우세하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다. 이 성향은 또한 한결같이 영혼에게 ‘평강’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영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향을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법칙에 따른 것이다(갈 6:8). 모든 만사가 반드시 이 원칙을 따른다.

(1)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그들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들의 양심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목표가 모두 육에 속하여있다고 증거한다! 당신은 이 사실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도 누가 감히 하루라도 육신에 속하여 살려고 하는가? 자신들의 비참함을 느끼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자(겔 36:26). 약속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2) 영에 속한 자들에게

복되다! 영에 속한 자들이여! 육신에 속한 자들과 다르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자. 영적인 생각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라. 영적인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강을 잃을 것이다. 항상 영원한 상태에 당신의 눈을 고정시키라. 언젠가 현재의 이 행복한 상태가 영광중에 완성될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는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각이 나타난다. 영혼은 영적인 마음에 의해 생각하고, 추론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기뻐한다. 이처럼 영혼은 생각에 의해 움직이며 생각한다. 영혼이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만약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세상 것들을 취하고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과 상태는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 만일 우리 영혼의 생각과 애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위의 것과 다가올 천국에 있다면 그 영혼의 성정은 신령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주한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

는지라"(빌 3:20). 영적인 마음의 성향은 그 삶에 생명과 평안(롬 8:6), 고요함과 만족, 그리고 항상 흘러넘치는 평강을 가져온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즐거움도, 정욕을 통한 그 어떤 만족도 영적인 것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풍미와 맛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고려해보고 특히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에 어디로 향하는지를 관찰해보아라. 그 관찰은 당신의 마음이 영적인 것을 향하는지 그렇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위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존 플라벨-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관점을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거의 어둠의 성향은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를 괴롭힌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소생케 하시며, 깨우시고, 움직이도록 하시며, 자극하시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이끄신다.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맛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장래에 하늘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J.C 라일-

영적인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성령의 일들을 위대하게 여기고 추구함으로써 그 상태를 증명한다. 성령의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과 거룩, 그리스도의 왕국 및 천국에 대한 관심이다.

-찰스 핫지-

2. 영적인 마음이란 무엇인가?

출처: *From Spiritual Mindedness, abridgement R. J. K. Law* (Edinburgh; Carlisle: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9), 7-14

저자: 존 오웬 (1616-1683): 영국 회중 교회 목사, 저자, 신학자. 영국 옥스퍼드셔 스태드 햄튼에서 출생

역자: 스테반 황

땅이 어떠한지는 그 땅에서 자라는 풀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보면 안다. 만일 생각이 영적이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만일 생각이 세속적이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쌓는 곳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쌓는 것은 선한 것이거나 악한 것이다(마 12:35). 마음 안에는 악한 것도 쌓여 있고 선한 것도 쌓여 있다. 따라서 사람이 그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든 그것은 그가 쌓은 것이다. 쌓은 것은 결코 소진되지 않는다. 오히려 쏟아 부을수록 더 쌓인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쏟아 부으면 같은 종류의 것으로 더 많이 쌓게 된다. 만일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쌓여 있을 때 그 마음이 쏟아 놓는 생각은 악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마음이 은혜에 의해 새롭게 된 후 은혜의 권능 아래 있으면 그 마음은 선하고 신령한 것들로 가득할 것이며 그 마음이 쏟아놓는 생각 역시 선하고 신령할 것이다(마 12:35).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생각은 그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만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일과 가정, 그리고 여러 의무들에 대해 여러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실제의 우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목사들 중에는 종종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신령하지 않을 자들도 있을 수 있고 실제 그러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을 부지런히 살핀다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날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일을 부지런히 할지라도 여전히 신령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겔 33:31).

사람은 편히 쉬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울 때 그의 마음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한다. 그때 우리는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만일 그의 생각이 헛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야망이 있고 정욕적이며 천박하다면 그 사람과 그의 마음의 진짜 모습은 그러한 것이다. 만일 그의 생각이 거룩하고 신령하며 위엄 있게 있다면 그 사람과 그의 마음 역시 그러한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 (창 6:5)이다. 이

것이 불신자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짜 산물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한 자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사 57:20)고 말한다.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다. 진흙과 같은 더러운 악한 생각은 늘 솟구치는 정욕과 걸잡을 수 없는 욕망에 의해 끊임없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의 생각을 갖는 것이다. 거듭난 영적인 마음은 맑은 샘처럼 맑고 깨끗한 생각을 쏟아낸다.

모든 사람이 가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신령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신령한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과 외부 영향에 의해 강요되는 생각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과 땅을 생각하며 심지어 땅에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시 49:11). 다른 어떤 이들은 악한 계획으로 가득하다(시 64:6). 그러나 이런 경우 시인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외부 영향에 의해 생겨나는 생각을 구별하지 않는다.

악인의 생각은 내면의 정욕에서 생겨난다(약 1:14). 욕심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은 욕심이 바라는 것을 공급하라고 격려한다.

신령한 생각은 중생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생겨난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영적인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고 격려한다. 예를 들어, 탐심을 일깨우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 탐심은 바라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생겨난다. 아간의 탐심은 그가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수 7:21)를 볼 때 생겨났다. 그가 그 물건들을 보며 탐욕을 품었다. 탐욕스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탐심을 갖는다. 즉, 탐욕이 그 사람 안에서 생겨난다(사 32:6). 탐욕스런 사람은 아량을 베푸는 사람과 정반대이다(사 32:8).

부정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의 정욕은 눈으로 원가를 볼 때 생겨난다. 욕은 더러운 생각을 피하기 위해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욘 31:1). 그리스도 역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봄으로 생겨나는 간음의 생각을 경고하셨다(마 5:28).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보다 옳은 쪽 눈을 뽑아 버리는 것이 더 낫다(마 5:29).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욕을 가지며 언제든지 간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음욕을 품는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에게 대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벧후 2:14)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스런 생각과 욕구가 신령한 것에 있다면 우리는 신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느 날 시인은 영적인 것을 묵상하다가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깨닫게 된다(시 45:1). 이때 원어로 이 구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선한 것을 보고 흥분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

다. 이 표현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과 연관된다. 그의 신령한 생각은 그의 안에 있는 생수의 샘에서 솟아난 것이다. 이것이 참된 신령한 마음이다. 즉, 그 마음은 거듭난 마음으로서 거룩한 생각을 뿜어내는 생명의 샘이다. 그곳에서 거룩한 것들이 흘러나온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묘사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요 4:10, 12). 주의 은혜에 의해 신자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생수의 우물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었던 우물은 생명이 없는 땅의 것으로서 물 길을 그릇과 밭줄이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솟아나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킨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영적인 속성을 갖게 된 사람의 비밀이다. 주의 은혜를 부으시는 성령은 신자들의 영적인 삶의 참된 원천이다. 영적인 이 샘은 거룩한 하늘의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외부의 영향이 없이도 그 마음에서 스스로 솟아나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신령한 사람은 자기 안에 이러한 영적인 생각과 소욕을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하는 신령한 샘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삶을 과일 나무에 비유하셨다. 좋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자연스럽게 나쁜 열매를 맺는다(마 12:33). 좋은 나무는 중생의 은혜에 의해 새롭게 된 생명을 의미한다. 그 생명은 거룩하고 영적인 좋은 생각을 열매로 맺는다.

사람은 내면의 영적인 샘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닌 외부 영향에 의한 여러 많은 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면(요 16:8) 그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상반되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 언덕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물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 물은 관을 통해 흐를 수 있고 심지어 위로도 흐를 수 있다. 그러나 압력이 약해지면 물은 다시 원래대로 아래로 흐른다. 우리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향한다. 그러나 영적인 책망에 의해 압박을 받으면 사람은 잠시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영적인 책망 및 압박이 제거되면 그 사람은 다시 세상 것을 생각한다.

외부의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압박한다(시 78:34-37). 그러나 이렇게 생겨난 생각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고난과 위험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잠시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압박이 약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시 비영적인 것에 자연스런 관심을 갖는다.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렘 13:23).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압력 및 영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령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샘으로 솟아나는 물은 막히거나 우회하지 않는 한 꾸준히 끊임없이 흐른다. 그러나 폭우로 인해 흐르는 물은 잠시 동안 맹렬하게 흐를지라도 조금 지나면 신속하게 마른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신령한 샘으로부터 솟아나는 영적인 참된 생각은 세속적인 일에 의해 마음이 분

산되거나 강력한 유혹에 의해 잠시 막힐 수는 있을 지라도 다시 꾸준하고 끊임이 없이 생겨난다. 그러나 책망의 폭우로 인해 자극을 받아 생겨난 영적인 생각은 신속하게 말라 사라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맑은 하늘의 생각을 하도록 부여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은 중생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 성향을 자극하고 일깨운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메마른 마음은 동일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 잠시 일시적으로 이것저것을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복음을 고백한 사람이 아무리 신앙적인 즐거움을 소유할지라도, 또는 자신의 영적인 안전에 대해 아무리 큰 확신을 갖고 있을지라도, 만일 신령한 생각을 추구하지 않고 또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일 것이다. - 존 뉴턴

3.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출처: *Romans: An Exposition of Chapter 8:5-17, The Sons of God* (Edinburgh; Carlisl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4), 4-13

저자: 데이비스 마틴 로이르존스(1899-1981): 웨일즈 강해 설교자이자 작가. 영구 웨일즈 카디프 출생

역자: 조상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롬8:5).

먼저 바울이 불신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자. 바울은 불신자는 “육신을 따른다”고 말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육신’이라는 단어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 이전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나고 길러지고 자란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다. 불신자는 “육신을 따른다.” *따르다*는 말이 흥미롭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after)를 “육신을 따라”라고 번역하지만, 그 보다는 “육신 아래에서(under)”로 번역함이 더 낫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는 다른 존재의 “아래(under)”, 특히 다른 권세 아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는 태어난 본성에 의해 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그가 저지른 원죄와 연결된 채로 태어난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지배와 권세 아래 태어났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들은 육신을 따른다”는 표현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도 덧붙이고 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있으며,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 상태는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첫 번째로, 그러한 사람들은 특정한 것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이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 이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똑 같은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고, 16절에서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런 다음 19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말씀하면서 이 단어(mind)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생각한다(to mind)”는 용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이 하는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온갖 질문을 해댈 경우, 당신은 그에게 “당신 일이나 신경 써라(생각하라)”고 말한다. 따라서 “생각한다”는 표현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을 기울이는 세심한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일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써라(생각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단순히 생각과 이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애정, 감정, 욕구, 추구

하는 대상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세상의 일들을 생각” 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끔 생각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이것들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들의 생각의 방향은 그것들을 향하고 있다. “세상의 일들”은 그들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해주고, 가장 큰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 표현도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을 단지 지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표현 역시 사람의 마음을 끄는 어떤 관심사들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로서 인격 전체에 미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17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쩌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들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육체의 일들”이라는 표현도 매우 포괄적인 의미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육체의 일들”이란 무엇인가? 조심할 점은 이 표현을 육체적 감각의 쾌락 등 육체에만 국한된 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육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본능에 속한 죄들, 즉 육체적인 죄들을 즉시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것들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이 훨씬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서 살펴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한다. 이를 볼 때, 이 표현이 실제로 대단히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17절을 다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열된다. 이처럼 “육체(육신)”라는 단어도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육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마디로, ‘육신’은 “세상적인 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성령의 “생각”과 “생명”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의 일들”이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이 배제된 삶의 모든 것을 말한다. 즉, 육신은 영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서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된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과 남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한 삶에 관련되며, 육신과 육신의 생각에 따른 다양한 본질과 속성들에 속박된 삶에 관련한다. 따라서 영적인 요소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여기서 비극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라는 말을 단순히 대도시의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골적인 죄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매우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세상에서 고귀하다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해당된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

나눔이 없는 정치적인 관심사, 하나님 없이 사회적인 관심사, 하나님 없이 문화적인 관심사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이다.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 세계의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했다. 즉, 그는 철학, 예술, 문화, 음악 등을 마음에 품었다. 하지만 육신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밖에 계신다. 하나님은 육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 육신에는 신령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매우 현명하고 정통하며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묘사할 수 있다. 또한 나쁜 상황들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줄 수도 있다. 그들은 일종의 어떤 낙원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능숙하게 글을 쓸 수 있다. 그들은 예술, 문학, 음악에 걸쳐 걸작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영혼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육신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된 육신의 일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술 취함, 음행, 살인과 같은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우리 내면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고집어낸다. 이렇게 하여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관심, 태도, 행위의 범위가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육신의 것들”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없다. 오늘날 세상에서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높이 칭송을 받는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술 취함에 빠진 사람들과 자신의 열정과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선하고, 교양 있고, 세련된 말을 하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가장 노골적이고 방탕한 죄인만큼이나 성령과는 무관하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하다. 물론, 그들은 그들이 그러하기에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이며 그러하기에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면 듣기 싫어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육신을 따르고” 있고 오직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하셨다.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상상도 하지 못하다니 정말 두렵지 않은가? 그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그렇게 나누어도 실제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매우 세련되고 선한 도덕적인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오직 사회적인 차이, 즉 피상적인 차이일 뿐이다.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다른 ‘죄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들은 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한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사와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 대해 말한 두 번째 내용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이다. 이미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은 육신의 것들을 생각한다며 말했다. 이제 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선포한다. 여기서 바울은 육신의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그는 말하길, 육신의 생각은 단지 죽음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5)라고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이 그의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 16:22)라고 항변하였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 16:23)고 말씀하시며 심하게 꾸짖으셨다. 사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야, 너의 문제는 너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점이다. 네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이 틀렸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라는 의미이다. “베드로야,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조금 전 위대한 고백을 했다. 나는 너의 그 고백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의해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위대한 영적인 사실을 말하자 너는 돌아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항변하였는데, 이로 보건대 내 말이 옳은 것을 네가 입증하는구나. 베드로야, 너의 문제는 지금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너의 세계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모든 과정이 슬프게도 그릇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는 구절의 의미이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성경에서 불신자에 대해 한 말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말씀한다. “죽었던 자” 이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고 반복해서 말씀한다. 여기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한다. “육신 아래” 에서 타락한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일들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들은 몸으로는 살아서 존재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다.

사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불신자는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산다.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매우 유능하고, 매우 교양 있으며, 삶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아서, 절대 술 취하거나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어쩌면 당신은 “아, 그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속에 계시지 않다(시10:4).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죽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고 말씀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는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와서도 신자들은 심령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데 불신자들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 항상 그래왔듯이 지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영적인 나라와 실체에 대해, 그들 자신의 영혼과 영생과 영원한 상태에 대해 죽어 있다. 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이다. 이것이 사도들이 그

들에 대해 말한 내용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들을 차단해 버린다.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그분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렇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분노하며 항의한다. 그들은 그런 말을 싫어한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한다! 바울이 말씀하듯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신을 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과 다른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너무 흔하다. 너무 슬프게도 소위 기독교 설교단이라고 불리는 곳과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요17:3),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적개심과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즉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내가 오래 살수록 더욱 더 확신하는 것은 심령의 변화를 받지 않는 모든 경건의 모양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아브라함 부스-

4.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가?

출처: *Old Paths: Being Plain Statements of Some of the Weightier Matters of Christianity* (London: Charles J. Thynne, 1898), 306-312

저자: 존 라일(1816-1900): 영국 성공회 주교, 영국 체셔 카운티 맥레스필드 출생

역자: 엄지웅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1:19).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은 무엇인가? 영혼에 임재하시는 그의 존재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흔적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

1) 성령을 받은 자마다 소생하여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분은 생명의 영(롬8:2)이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요6:63). 우리는 모두 본성적으로 불법과 죄 가운데서 죽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감각도 관심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믿음, 소망, 경외, 사랑도 가질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를 돌로 비유한다. 우리는 돈, 학위, 정치, 쾌락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임재하시면 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분은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그분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신다. 그분은 옛 것이 지나가게 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옛 사람을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신다. 그분은 잠들어 있는 우리의 내적 기관들을 향해 나팔을 부신 후 우리가 마치 새로운 존재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 행하도록 보내신다. 고요한 무덤 가운데 죽은 채로 갇혀있던 나사로와 우리 주님의 명령에 의해 걸어 나오는 나사로는 얼마나 다른가? 슬피 우는 친구들 가운데 차갑게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로의 딸과 예전처럼 일어나서 엄마에게 말을 거는 아이로의 딸은 얼마나 다른가? 성령이 임재하기 전의 사람과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처럼 다르다.

생각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완고하고 차갑고 감각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2) 성령을 받은 자마다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엡1:17). 주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요14:26),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요16:13)이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적인 진리에 관하여 무지하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전2:14), 우리의 눈은 멀어 버려서,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자신, 세상, 죄, 천국, 지옥에 관한 지식조차도 없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못된 관점에서 이해한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신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알게 하신다.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서 경이로운 빛으로 이끄신다. 그분은 가려졌던 휘장을 걷어내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며, 우리

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게 하신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종교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같은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 학교는 성령의 학교이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한 순간에 알아보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통적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동일한 언어로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분의 가르침은 결코 잊힐 수가 없다.

생각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에 관하여 무지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눈이 멀어있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3) 성령을 받은 자마다 그분에 의해 성경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사용해서 영혼에 대한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신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일컬어진다(엡6:17). 중생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듭난다고 말한다(벧전1:23).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가 내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신다(시1:2). 젖먹이 아이가 우유를 원하고 다른 음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영혼은 말씀의 참된 우유를 원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먹는다.

생각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또는 성경을 형식적으로만 읽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4) 성령을 받은 자마다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긴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께서 시행하시는 특별한 사역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16:8). 성령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책과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하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이 사람의 영혼에 임재하실 때 언제나 이 사역을 행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바른 위치에 두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사악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친 세리와 같이 탄식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합리화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는 나쁜 사람으로서 지옥 형벌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목사들이 잠깐 동안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 질병도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깰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마음이 녹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곧 다시 얼음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성령에 의한 책망이 없다면 그 마음은 아침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생각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체감한 적도 없고, 자신의 죄 때문에 경비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5)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취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

의 사역의 특별 영역이다(요 15:26, 요 16:16).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는 무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상상한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무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길을 잃은 소망 없는 존재이며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으며 그의 중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음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한 오직 믿음을 통한 영광스러운 칭의 교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다. 비둘기가 잘 아는 바위틈으로 날아드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의 영혼 역시 그리스도에게 날아가서 그로부터 안식을 얻는다.

생각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6) 성령을 받은 자마다 그분에 의해 거룩해진다. 그분은 거룩의 영이시다(롬 1:4).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 5:22-23)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새로워진 거룩한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옳다고 여기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벧후 1:4; 시 119:128). 죄는 더 이상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슬퍼한다. 죄에 지는 것은 그들의 수치이다. 그들의 소원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이다.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때이며, 가장 슬픈 시간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이다.

생각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보려는 흉내조차 내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7) 성령을 받은 자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롬 8:5)고 말한다. 그들 마음의 일반적인 어조, 취지, 경향은 영적인 것들을 선호한다. 그들은 간헐적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은 강한 유혹에 이끌릴 수 있으나, 그들의 삶, 길, 취향, 생각, 습관의 일반적인 성향은 신령한 것을 향한다. 이 사실은 당신이 그들이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모임을 좋아하는지, 가정에서의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모든 모습은 성령에 의해 그들 가운데 심겨진 영적인 속성의 결과이다.

생각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이 전부 가 있는 자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8) 성령을 받은 자마다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의 내적인 갈등을 경험한다. 사도 바울의 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소 적용이 가능하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

이니라” (갈 5:17). 신자들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어떤 거룩한 원칙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내적으로 또 다른 원칙을 느끼는데 그 둘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며 투쟁을 한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갈등 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좋은 사인이다. 이는 무장을 하고 있던 강한 자(눅 11:21)가 논란의 여지없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성령의 임재는 내적인 평강으로도 알 수 있지만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소망을 갖도록 배운 사람은 언제나 죄와 갈등하며 죄와 싸운다.

생각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내적인 갈등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죄와 세상과 자기 주장에 종노릇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9) 성령을 받은 자마다 성령을 받은 형제들을 사랑한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은 자에 대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일 3:14)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을 분명하게 볼수록,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같은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이국땅에서 동일한 본향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는 동료 여행자로서 그를 대한다. 죄가 처참하게 세상 밖으로 추방해버린 형제애를 회복시키는 것은 성령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구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사명, 동일한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데, 이런 요인들은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성령께서는 혈연, 결혼, 이익, 사업 같은 어떤 세상적인 동기도 배제한 우정을 일으키신다. 그분은 그들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심으로 그들을 연합시키신다.

생각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신령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즐거움이 전혀 없거나, 심지어 성도들을 비웃는 자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10)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은 자마다 기도하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성경은 성령을 “은총과 간구의 영” 이라고 부른다(속12:10).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눅 18:7).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기도가 형편없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 그들 안에 무엇인가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고 말한다. 젓먹이 아이가 고통과 배고픔을 느낄 때 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령에 의해 새로운 본성이 심겨진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된다. 그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갈4:6)라고 부르짖게 된다.

생각이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형식적이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몇 마디 말로 기도하는 수준에 만족하는 자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5.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출처: *A Complete Body of Doctrinal and Practical Divinity: Or A System of Evangelical Truths, Deduced from the Sacred Scriptures, New Edition, Vol. 2* (Tegg & Company, 1839), 539-545.

저자: 존 길(1697-1771): 침례교 목사이며 신학자, 성경 학자. 영국 노스앰튼셔 케터링 출생

역자: 안선형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6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를 뚜렷하고 강하게 대비시키며 표현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썩어 없어질 육신과 죄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산다. 육체의 욕심은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둔다. 이런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뿐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이 주는 만족을 따르며, 그들 스스로 육신의 죄라 불리는 육체의 정욕에 집착하더니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죄의 삯인 영원한 사망이다.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육에 속한 모든 것과는 정반대인 영의 생각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로마서 8장 1절, 4-5절에서는 이들을 ‘영을 따르는 자’ 라고 말한다.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 여기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영적이지는 않다. 또한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그가 그러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매일의 삶 속에서 겉모습이 의롭게 보인다고 든지 언행이 바르다고 한다면, 그는 고작 영적인 사람이기보다는 도덕적으로만 바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사람은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 (딤후 3:5)은 취할 수 있지만, 경건의 진리와 능력은 없을 수 있다. 특별한 은혜에 의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신령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설교를 마친 후에 “가장 좋은 길” 에 관해 언급하면서 사람은 특별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은사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지만 참된 은혜가 결핍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전 12:1, 31; 13:1, 3). 신령한 사람은 남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인 지식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은 가장 신령한 자로서 가장 귀한 부류에 속한 것은 확실하다(고전 3:1; 갈 4:1).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즉 지식도 부족하고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길’ 의 특권이 부여된다. 신령한 사람이란 그들에게 몸이 없고 죄가 없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이 세상에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천국에 올라간 성도만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히 12:23). 성도는 부활의 날에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

1)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중생하여 새롭게 살아난 자들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물과 비교하시며 이들을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든지 영으로 또는 영적으로 난 자이다(요 3:5-6) 이들은 하나님

께로부터 난 자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벧후 1:4). 욕정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벧전 1:23).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과 주권적인 의지와 기쁜신 뜻에 따라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벧전 1:3).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첫 열매이다. 그렇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딤후 3:5)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심령도 새롭게 되어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살리신다(엡 2:1). 생명의 성령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처럼 일어나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생명을 다시 받은 자는 새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과 지식을 따라 행한다. 그는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정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죄를 없이하는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며 적용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더해 영적인 일이라면 열정적으로 전심을 다 한다. 이들이야말로 진실로 신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불릴만하다.

2) 영에 속한 사람은 지각을 훈련해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들은 선한 것을 택하여 마음을 선한데 두고 악한 것을 버리고 피한다. 이들에게는 영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분별력이 있는데 영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을 구별한다. 물론 그 분별력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없는 영적 분별력이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분별력을 갖게 되며 그것으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욱 뛰어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좋게 여긴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에게 보는 눈을 주셨다. 그리스도와 자신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다(엡 1:18). 영적인 사람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요 9:25). 그들은 자신이 소망이 없는 실패자인 것과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구세주로 합당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충만과 존귀를 바라보게 된다. 기쁨으로 복음을 들으며 복음은 이들에게 즐거운 소리로 들려온다. 복음은 그들에게 좋은 기별임과 동시에 평화와 용서, 공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이다. 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에 이끌리어 그분을 사모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즐거워하며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요 10:5). 그리하여 영에 속한 이들은 다른 이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이들은 영적인 일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다른 이들에게 와보라 하면서 주님께 인도한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즉 복음의 교훈은 영의 사람들에게는 꿀과 꿀 송이보다 더 달다.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으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열매와 은혜의 복 또한 즐겁고 달콤하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일, 영적인 것들을 만끽한다. 그리스도의 좋은 기름, 풍성한 은혜의 품이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그분께 드린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의(義), 그리고 그분의 희생 안에서 향기로움을 맛본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겹옷에서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난다. 영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논하며 생명나무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다.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잊었다가도 다시 그분을 찾아서는 두 팔로 안아 꼭 붙들고 다시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이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복음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입게 되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3)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일을 위해 연단을 받고 행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령한 마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만 성령으로 영의 방식으로 예배한다. 이러한 예배는 선한 일로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육에 속한 사람과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싫어하시지만, 영의 사람은 영에 속한 일에 대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주님은 이들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그들에게 순결한 언어, 즉 가나안 방언을 내려주신다. 영에 속한 사람은 가나안 방언으로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이들은 소중한 내적 체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마음의 풍성함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눈다. 대화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이들이 어디에 속해있는지 밝히 보여준다. 이로써 이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인 사실이 증명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롬 8:1, 4). 이로써 육신에 속한 사람과 구별되고 신령한 성품을 갖게 된다. 그렇다, 이들은 자기 위주가 아닌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인도심과 교훈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며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둔다.

4)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며 성령의 은혜인 믿음, 소망, 사랑, 그 밖의 모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다. 성령은 은혜로운 선한 일, 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살전 1:3)를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다.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신자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빌 2:13),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운 것은 무엇이든 행하게 하신다(히 13:21). 성령은 이들에게 그분의 뜻과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신다. 성령은 이들을 강화해서 모든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은혜는 이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원리이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롬 6:14).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롬 5:21).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사망의 포악한 권세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킨다(롬 8:2). 그리하여 이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기까지 하신다. 성령은 영에 속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과 구별하는 기준이다. 육신에 있지 않은 사람, 즉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있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롬 8:9). 이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부른다(고전 3:16, 6:19). 육에 속한 세상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며 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육체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정욕과 탐심과 소욕이 많더라도 성령을 안다(롬 8:9, 요 14:15).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갈 5:17),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롬 7:14, 24-25)고 고백한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사람이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

은 육신에서 태어난 육신이다. 사람은 육에 속하여 있으면서 죄와 부패로 가득하다. 그들의 마음은 육신적인 생각만 한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죄로 더럽혀져 있고 그로부터 나오는 것은 죄악뿐이다. 마음이 헛되고 공허하며 그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살아간다(엡 4:17).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경외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우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로서 성령이 없는 자이며(유 1:19) 주의 은혜도 없는 사람이다.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빌 3:19) 정욕과 소욕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즐거움으로 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요일 2:16). 그들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악을 추구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다, 이들의 마음은 악을 행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전 8:11). 마음의 이런 성향 때문에 특히 영적으로 선한 일은 조금도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없다. 이렇게 본성이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라면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그 마음을 다른 기질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겔 36:26).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뜻하도록 역사하셔야 하고 또한 그에게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성향을 주셔야 한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채워주신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생각에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선한 일에 관심을 갖도록 감화하시고 이끌어주신다. 또한 신령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면서 육신적인 생각의 악함과 그로 인한 비통한 결과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된 증거 및 그 효력과 결과는 생명이다. 영의 사람은 신령한 생각을 한다. 또한 신령한 감각을 갖는다. 그들이 신령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감각도 있는데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영의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사용한다.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오감(五感)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면 영감(靈感)은 없으며 감각의 연단도 있을 수 없다. 육감(肉感)으로 사는 사람이 본능에 따라 살듯이 영적 감각이 총명한 사람은 영으로 산다.

2) 영의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삶으로 나타낸다. 이들은 신령한 일에 호흡을 맞춘다. 기도는 영에 속한 모든 사람의 호흡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행 9:11). 기도는 생명이 있음을 증명한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의 성격과 기질을 드러낸다. 그의 행실은 영적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행한다.

3) 영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행하며 마땅히 할 바를 열심을 품고 이행한다.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다(약 2:17). 그가 바라는 건 산 소망이며(벧전 1:3) 그의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그 사랑은 죽음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아 8:6). 이는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증거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행함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 이런 사람은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사 40:31).

4) 영의 사람은 자신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 영적인 상담과 조언, 영적인 위로를 행하면서 영적 권면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5)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은혜에서 흘러나온다. 신령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생명에 참여한 것이 되고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요 6:40, 3:16) 약속에 의해 확실하다. 이 생명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요 4:14)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의(義)로 인해 그들이 영생에 합당하게 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신다.

영의 사람이 된 증거로 또 다른 결과는 평안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평안하다. 심령의 평안은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 평안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평안은 신자의 양심을 향해 평안을 외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신령한 일들은 내적인 평안을 만들어내고 그 평안을 유지하며 증가시킨다. 영의 사람은 화평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통치 아래 있어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 영의 사람은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를 쓴다(롬 12:18).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교회 안에서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다. 평안은 우리의 목적지이다. 평안 가운데 세상을 떠나 평안으로 들어간다. 평안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자 행복이다.

6. 세상적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출처: *A Treatise of Earthly Mindedness, Soli Deo Gloria*, an imprint of Reformation Heritage Books

저자: 제러마이어 버로우즈(1599-1646): 회중주의 목사이자 신학자. 영국 잉글랜드 동부 지역에서 출생.

역자: 박기철

첫 번째 지침: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멀리가지 않도록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가능한 자주 묵상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길 자신들은 생각할 자유가 있으며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의 자유분방한 생각들로 인해서 당신은 사로잡힐 것이며, 당신의 마음이 그 생각들로 지배당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주의 깊게 생각들을 감시하고, 그것들이 성경 말씀 안에 있도록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지침: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더욱 경비해야 한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이며 불순한 마음을 지닌 자들로서 그들은 죄의 짐에 대해 무지하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위에 죄의 짐과 그 무게를 알게 하실 때에는 그들은 세상 것들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을 모르는 이들은 그 세상적 안락함 속에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무감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죄의 짐에 눌린 경험을 한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신다면, 경비해진 당신의 영혼이 활기있게 되어서 둔감하며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여 이 세상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지침: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더욱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지침은 이전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당신의 본으로 삼는 것이다. 유념할 것은 그들은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외국인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여유로울 때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아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그들은 37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되었는데 이를 주목해서 보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세상이 멸시한 이들이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 11:38). 비록 세상은 그들을 멸시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은 온갖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 자, 이 본보기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네 번째 지침: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네 번째 지침은 장차 있을 위대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껏 세상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마지

막 심판의 날에 회계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아라. 이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멀리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오늘 죽어 모든 육체가 가야 할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라.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만족과 기쁨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다섯 번째 지침: 무엇보다도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침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죽으심을 목상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다. 그러한 분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많이 생각하라. 그것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죽일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목할 만한 본을 보게 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간주했다. 8절에서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며,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기를 갈망했고, 세상의 것은 그와 비교하면 모두 배설물 같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깊게 목상했다. 그런 목상은 그의 영혼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인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개들이나 먹는 더러운 찌꺼기처럼 여기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덜 세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상함으로써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 그 탁월함이 당신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어느 프랑스 왕이 말하길 개기일식에 대해 물으면서 “나는 세상의 일로 너무 바빠서 하늘의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간절히 권하노니, 형제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란다. 중요한 사업을 하느라, 또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 하늘의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의 사업이나 장사나 목표나 성향은 땅의 일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

우리에게는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쏟아 부어야 할 일이 있다. 하지만 세상의 일들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의 안락함을 즐길 때 반드시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누릴 때는 한없이 자유롭게 누리게 된다. 이는 하늘의 것들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신분이 낮다 해도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분명 세상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 진정 탁월한 것은 위의 것인 하늘의 것이며 영적인 것들이다. 그곳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다!

거룩한 사람은 영적인 마음을 따라 행한다. 그는 그의 감정이 전적으로 위의 것을 향하도록 노력하며, 이 세상의 것들은 살며시 붙잡는다. 그는 당장 해야 할 이 세상의 생업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 있다.

-J.C 라일-

나는 당신들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요즘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모습을 찾으려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나를 끌리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다. 즉, 그들의 마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 나는 모든 이들보다 그런 자들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이것은 사활이 걸린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증이다.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7. 신령한 마음의 증거

출처: *Spiritual Mindedness*, abridgement R. J. K. Law (Edinburgh; Carlisle: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9), 33-40.

저자: 존 오웬 (1616-1683): 영국 회중 교회 목사, 저자, 신학자. 영국 옥스퍼드셔 스태드 햄튼에서 출생

역자: 스테반 황

우리의 사고방식과 습관의 변화는 우리의 새로운 마음과 생각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생겨난 새로운 영적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적 경로로 흐를수록, 우리가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더 나타나게 된다.

가을바람에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서 떨어진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창 6:5)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에는 얼마나 지옥과 같은 공포와 혼란이 가득하겠는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이 가장 바라는 구원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원이 없이는 생명과 평화, 불멸과 영광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죄책의 모든 목적은 이러한 생각들을 멈추게 하거나, 적어도 죄악의 수를 줄이거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이다. 참된 죄책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도 관련된다. 죄책은 잠시 동안이라도 사람의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죄책이 미신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그러하다. 죄책과 미신적인 관행은 카톨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온갖 미신적인 신앙의 근간이다. 죄책은 사악하고 타락한 생각에 한계를 정하며 미신은 거둬나지 않은 마음이 쉽게 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을 제시한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인간의 지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계획을 꼬집어내고 만들어낸다. 강물의 흐름이 바다로 흐르듯이 거둬나지 않은 자연인의 생각은 자아를 통해 지옥으로 흘러간다. 이 강력한 강을 막으려고 댐을 건설해도 소용이 없다. 어떤 댐도 인간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센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이 강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의 생각에서 도덕적인 악을 치료하는 것이다. 엘리사가 여리고의 쓴 물을 달게 한 것처럼 이 방법은 소금을 샘에 던지는 것이다. 모든 생각의 근원인 마음과 지각은 은혜로 간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좋아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의 풍성함을 다루는 것이다. 이 강력한 생각의 흐름은 새로운 경로로 전환되어야 한다. 새로운 목표, 목적, 대상이 그 마음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대상이 영적일 때 우리의 마음은 신령하여질 것이다.

바울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한다(엡 5:18-19).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드러난다. 신자는 술의 영향과 통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영향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들이 성령의 영향 아래 있게 되면 그들의 마음과 지각은 영적

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지각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런 생각을 표현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게 된다(엡 5:19).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신령해지면 영적인 생각으로 풍부해질 것이다. 가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신령한 마음을 지닌 사실을 증거하지 못한다. 신령한 마음을 가진 신자는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시편 119편을 읽고 자신을 점검하라. 당신은 비록 다윗만큼의 열정은 아닐지라도 은혜로 인해 동일한 진심을 갖고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글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될 수 없어요”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우리가 지금 다윗이 있는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기쁨의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끊임없는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처럼 될 수 없다고 변명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고전 10:11). 만약 우리가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즐거움과 신령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또는 그들이 도달한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가질 수 없다. 이 증거를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세속적인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들의 순종은 내키지 않은 순종이 아니었다. 그들은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하였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며 열심히 주를 따랐다(시 63:8).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도들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속 12:8)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성도들처럼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만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영향 아래 우리 자신을 의탁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 생각을 하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시간과 기타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라. 예수께서는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과 직업, 그리고 가족에게 주로 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관심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신령한 마음을 가졌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늘과 영원한 것들과 영원한 영광을 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사소한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서 가끔 하늘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일까?(마 6:31, 33-34).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는 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옷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즉, 이런 것들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늘 아버지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믿음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마 6:33).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를 그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 세속적인 생각이 끼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세속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영적인 것들이 끼어든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신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은 허망하고, 쓸모없으며, 전혀 유익하지 않다. 그런 생각들은 종종 죄라기보다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헛된 생각"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렘 4:14). 헛된 생각은 헛된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행복을 가져오기는커녕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헛된 우상으로부터 행복을 구하였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헛된 생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헛된 생각들은 자가 당착에 빠진 사람들의 것이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대단하게 생각하며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즐길 수 없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런 생각은 교만과 정욕,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욕망, 그리고 세상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는 오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큰 불행이며 형벌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해방되는 것은 큰 축복이며 하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대신에 그러한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신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이런 헛된 생각을 죽이고 영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다음으로,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제적인 악한 생각들이 있다. 그러한 생각은 거둬나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가득하며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일 2:16)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 영적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를 점검하라.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종종 갖게 된다. 너무나 바빠서 가정과 식구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한 여러 다른 것들을 생각하느라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이 홀로 있으면서 최선을 다할지라도 헛된 생각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

만일 우리가 신령한 생각을 갖고 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홀로 있을

때에도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것이다(시 16:7-8; 92:2; 신 6:7). 그러나 만일 이러한 홀로 있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조용한 시간을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허망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생각을 즐기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슬픔, 불안과 혼동을 겪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특별한 시간들 및 여가 시간을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의 교제를 가장 바라고 있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다.

잠자리에 들 때, 또는 잠을 설치거나 깨어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미 2:1) 자들이 있다. 반면에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시 149:5-6) 자들이 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는 자들이 있고(시 36:4)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자들이 있다(시 4:4; 63:6). 만일 신령한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이러한 특별한 시간을 영적인 생각과 묵상에 바치도록 하라.

이런 저런 이유로 이러한 시간을 영적인 묵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괴로워하는지를 점검하라.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마음은 영적인 생각을 위해 시간을 갖지 못해도 아무런 영려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령한 마음을 가진 영혼은 영적인 묵상의 기회를 놓치게 될 때 슬퍼하면서 다음에는 더 주의할 것을 결심한다. 후회로 가득 찬 가운데 그 영혼은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의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그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는가! 내가 가진 기회를 등한시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내가 이런 시간만 활용했다라면 십자가나 천국에 대한 준비와 즐거움과 확신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처럼 신령한 마음을 가진 가장 큰 증거는 우리 마음이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다.

슬픈 일이지만 나는 복음주의자들이 신령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너무나 천상의 마음을 갖게 됨으로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고 농담하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리고 그런 농담은 예리한 말로 인식되고 있다. 오, 이런 비극이 어디 있는가! 당신은 결코 지나치게 천상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우리 모두의 문제는 우리는 충분히 천상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며 천상에 대해 충분히 모르는 것이고 천상에 충분히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며 우리의 이해에는 깨달음이 없다. 기독교인은 필연적으로 천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한 자이고 그의 마음이 변한 자이다. 그는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에 지배되곤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는 거룩한 영향을 의식하며 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루고, 그의 영혼 안에서 일하며, 그를 움직이고, 그를 끌어당기고, 그를 세

상에서 천상으로 오도록 권한다.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그가 은혜 가운데 자라난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렇다. 그는 죄를 더욱 의식하며 그의 믿음은 강해지고 그의 소망은 분명하여지고 그의 사랑은 더 넓어지고 그의 생각은 더욱 신령하여진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경건의 힘을 더 많이 느낀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경건을 더 많이 드러낸다. 그는 힘에서 힘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간다. - 존 라일

마음으로 향하는 모든 길은 해를 끼치는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헛된 생각과 계획을 주의해야 하고, 특히 그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 시기에 조심해야 한다. 만일 해로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장악하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즐긴다면, 신령한 마음을 가지려는 소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해로운 모든 생각은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킬 양식이 될 것이다. - 아더 핑크

만약 그대가 천국에 온다면, 당신의 영혼에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원리가 심겨져 있었던 것이다. 천국의 원리는 당신을 천국으로 향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으로 하여금 천국을 생각하게 하고 천국에 마음을 갖게 한다. - 제러마이어 버로우즈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천상의 마음과 사랑을 주셨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하늘 자체를 주실 것이다. - 토마스 만턴

8. 신령한 마음 기르기

출처: *A Treatise of Earthly Mindedness*, Soli Deo Gloria, Reformation Heritage Books
저자: 제러마이어 버로우즈(1599-1646): 회중주의 목사이자 신학자. 영국 잉글랜드 동부 지역에서 출생.

역자: 장아브라함

아마도 당신은 이런 말을 되뇌곤 할 것이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의 삶은 참으로 탁월한 삶이다. 오,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첫째로 한 가지 원칙을 붙들라: 그런 삶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 모든 신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그 심령에 영적 소원이 강렬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그렇다, 바로 이 땅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의 천사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더불어 살 수 있다. 이미 이런 삶에 도달한 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 역시 당신과 똑같이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었다. 바울은 천국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조차도 많은 약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비록 그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자, 로마서 7장을 읽어보자.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죄 아래에 팔렸다고 말했다. 그가 선을 행하고자 원했을 때 악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자신의 마음의 법과 싸워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많은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는 하늘에 속한 삶에 관해 말했는데,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역시 그런 삶에 이미 도달했음을 서신으로 알렸다. 그들은 실제로 영적인 교회가 되어 스스로 낮아지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특출한 은사를 갖지는 못했으나 천국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당신이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선한 양심을 힘써 지켜라 - 당신의 양심에 천국이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양심이 완전히 더럽혀지도록 방치하는 이들은 천국과 연결된 소통의 끈을 놓치고 만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겹고 따분한 것이 된다. 한번 양심이 더럽혀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한다. 사람의 양심 속에 지옥이 자리 잡게 되면 천국은 그런 자의 삶 속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남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양심을 깨끗하게, 그리하여 그 속에 천국이 머물 수 있도록 힘쓰게 하라.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기회를 살려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라. 당신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로 분주하겠으나, *당신의 시간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이 종이라면 주인의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천국의 삶을 연습할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만약 그 시간을 그리 길게 가질 수 없다면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라. 천국의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주의 깊게 살피라. 이를테면 묵상, 기도, 독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 등등. 실로 우리가 오롯이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의 삶을 연습할 수 있는 각종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며, 그런 기회를 부지런히 찾는 이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천국의 삶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의무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천국의 삶에 이르고자 하는 신자들이라면 천국의 삶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만 한다. 이런 신자들은 그 같은 기회들 속에 삶의 총명한 기쁨과 위로가 있음을 안다.

다음으로는 이 사실을 명심하라: 형식주의에 안주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기회를 살리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되 그와 관련된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형식주의는 당신의 삶을 캄캄한 어둠 속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은 매우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형식주의에 안주한 채로 신령한 직무를 수행한다 한들 그런 삶에는 아무런 아름다움도 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와 같이 내면에 선한 것들을 담고 있는 신자들이지만, 종교의 허례허식에 빠져들어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부끄럽게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한 영혼에는 도무지 위로가 없다. 그들은 죽은 영혼의 상태를 지속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한다. 오,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모두 본성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양심의 깨어남을 받은 이들은 신령한 직무를 감당할 기회를 잡기 위해 담대한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과 우리 육신의 부패성이 뒤따른다. 당신의 직무를 완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내라. 자, 이제 당신은 기도를 다 끝마쳤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기도하는 동안 천국의 삶을 경험했는가? 당신은 하나님과 무슨 영적 거래를 했는가? 형식주의를 조심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천국의 삶은 심각한 방해로 받게 될 것이다. 제아무리 연약하다 해도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떠들거리며 말을 할 수 있고, 매끄럽지 못한 몇 마디 말과 완결되지 않은 문장으로라도 아낄 수 있다. 기도하는 자가 형식주의에 머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일을 감당한다 해도 그 일에 안주하는 한 천국의 삶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당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육신에 대한 방비책을 세워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 어떻게 바울은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했다. 이는 말 그대로 “시퍼렇게 피멍이 들도록 때린다”는 뜻이다. 그는 몽둥이로 자신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은 듯하다. “나의 이 몸은 내 마음을 신령한 것들에서 멀어지게 하여 나를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존재로 만들려 한다. 나는 내 몸을 억누를 것이다. 결코 나는 육신과 몸을 만족시킴으로써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들에서 내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일체의 유혹에 힘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차라리 난 내 몸을 치노라.” 어느 신자라도 완벽하게 신령한 존재는 없다. 다만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감각들을 부단히 경계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천국의 삶에 도달해야 한다.

경건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감당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도록 노력하라.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는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이다(창 28:12; 요 1:51). 야곱이 누워 잠이 들어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였다. 신자들에게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대화를 나누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한다. 당신은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또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뤄지는 경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대의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닥다리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써 그분의 중보를 통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신자가 이런 방식의 삶을 살게 되고 아울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을 중보자를 통해 얻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그리스도의 손과 심장을 통해 바치노라” 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신령하고 친밀한 교감이 풍성하여진다. 그곳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곳이지만, 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곳에 다다를 수 있으며, 그곳에서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로 옷 입히신 신자들을 의롭게 여기신다. 신자들은 만형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소원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감을 얻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덕분이다. 오, 그대여,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늘이 당신에게 임하게 되며, 바로 이것을 통하여 당신이 하늘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당신은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니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라며 기도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그들 속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그것은 우둔하고 육신적인 방식이다. 내가 당신의 마음에 심고자 하는 진리는 이렇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오직 이는 중보자,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2위이시며, 하나님이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분을 통하여 전달된다. 바로 이 중보자,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을 연합시킨다. 이분을 통하여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행위들이 받아들여진다. 오로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내게 온다.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수많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의 힘을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온다. 이 축복은 자연이 주는 온갖 종류의 축복들을 넘어서는 축복이며,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서는 것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즉각적으로 받는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는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 놀랍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은 신자들은 우둔하고 힘겨운 육신적 예배에 집착하는 이들보다 훨씬 신령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비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의 심령은 저 낮은 땅의 세계에 속박되어 신자들이 누리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면서 제시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이렇다: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발휘하라. 육신과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믿음의 은혜를 발휘하는 길밖에 없다. 수많은 신자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죄에 대한 근심과 슬픔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들어있다. 죄를 애통하게 하는 회개의 은혜는 선한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인내도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천국의 삶에 도달하기 위하여 붙잡아야 할 대단한 은혜는 믿음의 실천이다.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발휘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시지만 실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닥다리를 오르게 하고, 다시 내리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실상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은 믿음이다.

9. 죽음에 대해 생각하라

출처: *The Complete Works of Thomas Manton*, Vol. 11 (London: James Nisbet & Co., 1873), 459-468.

저자: 토마스 만턴(1620-1677): 영국 장로교 청교도 목사. 영국 서머셋 로렌스-리디아트 출생.

역자: 신창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롬8:6)

사도는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대로이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히 언급해야 한다. 그것의 결과인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의미한다. 그것은 현세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다. 첫째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셋째는 끝없이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1) 죽음은 앞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통해 마침내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질병, 고통, 괴로움, 위험 등, 이것들은 죽음의 시작이다.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고후11:23) 즉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뜻이다. 애굽 왕 바로는 죽음이 그에게서 떠나기를 구하는데(출10:17) 이는 메뚜기의 재앙을 의미한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사멸에서 절정을 이룬다(고전15:55). 자, 이 모든 것은 죄의 열매이다.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삶을 사용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잃는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겠는가?

2) 영적인 사망 또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반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한다(엡2:1). 향락을 일삼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딤후5:6). 즉, 그는 은혜의 삶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다.

3) 영원한 사망은 주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부른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계 20:6)고 하고,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고 말한다. 이것은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며, 육신에 종노릇 하는 자들의 몫이다. 이것은 멸망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감각이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고통이 동반되는 해체가 있기 때문이다.

나무와 채소는 고통 없이 죽는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은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 죽음은 더 쓰라린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보다 생명의 달콤함에 더 민감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따라올지 미리 예측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이 없는 비참 때문이고, 첫 번째 죽음에서와 같이 현재의 삶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망은 두 가지 엄중한 개념으로 제시된다. “거기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막9:48). - 이것은 양심을 찌르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죄인을 영원히 비참하게 만든다. 양심을 찌르는 것이나, 지난날 어리석음의 괴로운 기억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무시하고 죄의 쾌락을 쫓던 그들의 광기를 숙고할 때 더욱 큰 고통을 준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있다. 둘째 사망의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몸의 지체나 영혼의 기능은 없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형벌에서 피할 부분은 없다. 첫째 사망에서 고통은 머리나 심장 같은 한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옥에서는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 첫째 사망의 고통은 곧 끝나지만 둘째 사망의 고뇌와 고통은 영원히 지속된다. 첫째 사망이 더 지배적일수록 우리는 감각을 잃어간다. 그러나 둘째 사망을 당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한 감각을 갖게 된다. 모든 감각의 수용력은 확대되고 더 많은 고통을 수용하게 된다. 첫째 사망에서는 감각에 타격을 더 가할수록 감각은 더욱 무디어진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서는 모든 감각의 수용력이 확대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괴롭히는 동안 그 모든 고통을 한없이 느끼게 된다.

성도들이 그들의 복에 의해 강력하게 됨으로 이 세상이 조금도 견딜 수 없는 빛과 영광을 감당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 무서운 고통을 그대로 견딜 수밖에 없게 된다. 첫째 사망에서 우리의 기도는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구한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서는 우리는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소멸을 바란다. 모든 사람들은 치통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치아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죽음은 육신적인 삶의 열매이다.

10. 영원에 대해 생각하라

출처: *Sermons on Important Subjects*, Vol. 1 (New York: T. Allen, 1792), 297-312,
저자: 사무엘 데이비스(Samuel Davies) (1723-1761): 장로교 목사. 미국, 델라웨어, 뉴캐슬 카운티 출생.

역자: 오병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8).

죄인들이 복음에 어리석은 정도로 무관심하고 또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영원한 것들과 일시적인 것들을 적절히 비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사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활동을 소진시키고 있다. 반면에 장래 세계의 무서운 현실들은 육신의 장막과 무지의 구름에 의해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다.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져서 보인다면 생각 없이 살던 탕자가 충격을 받을 것이며 위선자의 가면은 벗겨질 것이고 게을렀던 성도는 뜨겁게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 때 인류의 관심은 세상 안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지가 될 것이다. 장래 세계의 영원한 행복이나 비참을 보게 되면 현재의 즐거움이나 고통은 보이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 및 영원한 끔찍함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일 죄의 쾌락이 영원한 고통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죄의 쾌락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지루하고 무거운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면 잠시 받는 경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도가 세상을 향해 가졌던 관점들이며 전파한 교훈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가 고통스럽게 사역하는 중에 동반된 모든 역경들과 위험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굴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알려준다. 비록 그가 그의 몸에 주 예수의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고 또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더라도 그는 자빠지지 않았다. 그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는 사실은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영원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그 고난은 매우 무겁고 여러 해 동안 계속된 것이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는가! (고린도후서 11:23-29을 보라). 그러나 그가 그러한 고난들을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즉, 채찍질을 당하거나 돌에 맞거나 투옥당하는 것과 매일 노출되는 모든 죽음의 상황들이 단지 가볍고 사소한 고난이 되어 거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였다. 영원한 관점에서는 여러 해 동안 일련의 계속된 고통마저 단지 잠시 동안 견디는 고통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가 영광스러운 장래를 보며 그를 위해 마련된 행복을 알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고후 4:17)이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 그 숭고한 느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없다.

영원한 영광은 고난에 상응하는 영광이다. 그것은 가벼운 고난에 상응하는 중한 영광이다.

그 영광은 숨이 막힐 듯한 큰 축복이기에 그 복을 감당하려면 영혼의 모든 힘이 필요하다. 잠깐의 고난에 상응하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고난을 다 마치면 훨씬 더 놀라운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거대한 생각을 어찌 인간의 제한적인 연약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중한 영광을 실제로 누릴 때에야 그나마 영원한 영광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될 것이고 하늘의 방언으로라야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 라고 말하였다.

바울 사도는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른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보이는 것이란 현재의 삶과 시간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한다.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모든 수고와 추구, 현재의 상태의 오락들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영원한 세상의 보이지 않는 모든 실체들을 뜻한다. 인간의 시야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과 즐거움과 고난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영의 아버지, 천국의 기쁨, 지옥의 고통 등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아닌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본다. 이는 모순처럼 들리지만 신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과 각성된 이성으로 바라본다면 이해가 된다. 사도는 믿음에 대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 11:1) 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가 이 장에서 제시하려는 주된 핵심으로써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큰 효력을 나타내는지를 증거로 제시한다(11:10, 13-14, 16, 25-27을 보라).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집중하며 묵상하자. 그러면 당신의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현재의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장래의 것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그의 교훈들과 계획들을 말하였다. 요약하자면, 그는 이 비참한 세계의 영원한 거주자로서가 아니라 영원함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였던 것이다. 이에 그는 다른 곳에서 동일한 단어를 표현하였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후 5:7).

더욱이, 그는 왜 그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그의 삶을 규제 받았는지 알려준다. 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 말하였다. 사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소한 것에 영원함이 더하여지면 그것은 무한하게 중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영원함이 가장 완벽한 행복과 가장 비참한 불행에 더하여지면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그때에는 모든 일시적인 행복이나 불행은, 아무리 크고 오래 지속되었더라도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는 끝이 없는 바닷 속으로 던져진 작은 물방울과 같이 일시적인 행복이나 불행은 가라앉더니 사라진다.

이제 나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교하여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교하되 근본적인 속성과 지속성을 따질 것이다.

1) 근본적인 속성에 대하여: 이 관점에서는 그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것

을 나는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두 가지 광범위한 예로 설명하려고 한다.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으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추구이다. 즐거움은 모든 열정과 추구의 목적이다. 행복에 대한 본능적인 바람과 불행에 대한 혐오는 모든 인간 활동의 두 개의 큰 샘이다. 이 샘들이 완화되거나 고장이 나면, 모든 일들은 멈추게 될 것이고, 모든 활동은 정체될 것이고, 보편적인 무기력함이 세상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들은 영혼 그 자체와 공존하며 장래의 상태에서도 왕성하게 계속될 것이다. 그 때는 영혼이 성숙하고 그 모든 힘이 그들의 완전한 완벽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열망과 불행에 대한 혐오 또한 더욱 빠르고 활발하게 될 것이다.

어린 아이나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유아 상태에 있는 영혼은 즐거움과 고통에 대해 매우 깊은 경지까지 느끼지는 못한다. 따라서 극한 슬픔뿐만 아니라 극한 기쁨은 때때로 육체와의 미약한 결합을 해체시켜 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더 활기찬 감흥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감당할 수 있을 행복이나 불행을 지금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한다. 하물며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장래 세상의 행복과 불행을 더더욱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후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압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영광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 지옥의 고통의 한 가닥으로도 현재 우리의 영혼을 몸에서 떼어내기에 충분하다. 한번의 격렬한 고통만으로도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한 그 영혼에 경련을 일으키거나 무감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장래 세상에서는, 영혼의 모든 힘이 성숙하고 강해질 것이며, 육체는 불멸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부활 후 영혼과 몸 사이의 결합은 분리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무게를 또는 가장 무지막지한 고통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즐거움 고통은 현재나 장래의 세계에서 우리가 원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즉,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즐거움과 고통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의 즐거움은 현재의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뜻한다. 가령, 부, 명예, 관능적인 만족, 배움, 지적 향상, 이생의 모든 오락과 운동 등이다. 또한 장래의 즐거움, 즉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이란 하늘의 행복이 담고 있는 모든 결실과 즐거움을 의미한다. 현재의 고통은 현재의 삶에서 받는 모든 불안을 뜻한다. 가령, 가난, 손실, 실망, 사별, 질병, 그리고 육체적 고통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장래의 고통으로는 지옥의 모든 형벌이 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과 모든 복을 잃음, 죄책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후회, 끔찍한 동행자와 지옥의 유령들의 저주, 지옥 불꽃의 고문을 의미한다.

이제 이것들을 저울에 올려놓자. 그러면 하나는 가라앉아 무(無)가 되고, 다른 하나는 무한히 중요한 것으로 떠오를 것이다.

일시적인 것들은 제한된 것으로서 인간의 영혼의 역량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위대하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혼에게 모든 행복과 비참을 전달할 수 있다. 현재 상태의 영혼은 장래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거하면서 맞게 될 무한한 행복 및 비참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부터 받는 모든 즐거움과 고통은 반대의 속성을 가진 요소들과

섞여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순수하며 아무 것도 섞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들은 인간의 영혼의 역량과 대등하지 않다. 이 작은 존재의 불꽃, 즉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 종종 깜짝 놀랄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특히 영혼의 욕망은 일종의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시적인 것들은 저등하며 제한적이다. 그것들은 영혼의 역량을 만족시킬 만큼의 행복을 줄 수 없고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영혼은 최고의 일시적인 즐거움, 즉 명예, 쾌락, 부, 친구 등을 가져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공허감을 느끼며 그 행복을 완성시킬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다. 왕들은 그들의 왕좌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모든 장려함은 장엄한 불행일 뿐이었다. 솔로몬은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와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의 것들로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그가 가장 객관적으로 실험한 후에 모든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 내린 그의 의견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 1:2, 14). 반면에, 영혼은 외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도 모든 불행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죄책감은 이러한 행복마저 거부한다. 그러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비참하게 만들 수는 없다. 고통의 능력은 영혼을 향해 최대의 힘을 발휘되지 못한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사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위대하고 장엄하며 인간의 가장 확장된 능력이나 심지어 천사의 본성보다 무한히 우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영원한 세상에는 위대한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거하신다. 그곳에서 그분께서는 자기 손으로 즉각 일하신다. 그분은 하늘 전체에 직접 행복을 부으신다. 유향불의 줄기와 같이 지옥불을 피우는 것은 그분의 즉각적인 호흡이다. 반면에 현세에서는 그분이 직접 행복을 주시거나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피조물을 도구로 삼아 그것들을 전달하신다.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서도 행복이든 형벌이든 그것의 극단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일은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 장래 세상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행복 및 불행을 더욱 크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 안에 더욱 즉각적인 대리자를 두실 것인데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은 행복의 무한한 샘인 자신으로부터 자비의 그릇들에게 직접 행복을 부으실 것이다. 그분은 진노의 그릇들 위해 직접 자신의 진노를 부으시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나는 이 사실에 천사들과 마귀를 더하겠다.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들로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인간의 영혼에 행복 또는 비참을 더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즐거움이나 고통에 기여를 할 것이다. 내가 관찰한 또 다른 것은 우리의 신체 기능들과 연관된 모든 사물들이 위대하며 장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는 천하고 더러운 것들 사이에서 기어 다니고 있다.

그때에 우리가 응시하는 대상들은 한쪽으로는 베일이 벗겨진 신성의 영광들과 피조물의 경이함, 섭리, 구속이 될 것이고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우리의 죄의 끔찍한 속성과 악화됨, 영원한 형벌의 공포 등이 될 것이다. 만일 장래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보이

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비록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현재 역량에 잘 맞더라도 현재 우리의 영혼은 유아 상태로서 장래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의 정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이생의 즐거움은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다. 유치한 영혼만이 그런 놀이를 하며 걱정하거나 화를 내고 서로 성가시게 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들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며 위대한 것들이다. 따라서 장성한 영혼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

마치 어른이 아이들의 장식품을 얻거나 잃는다고 하여 행복해하거나 불행해하지 않는 것처럼 저 세상의 영혼은 그러한 장난감 같은 것으로 인하여 더 행복해 하거나 더 불행해하지 않는다. 그때 영혼은 즐거움이나 고통을 줄 더 큰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교하며 설명하였다(고전 13:9-11). 그렇다면 영혼의 능력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행복하게 하든 또는 완전하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영원한 중한 문제를 무시하고 이러한 유치하고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들로부터 비롯되는 현재 상태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과 뒤섞여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불안이 없을 만큼 행복할 수 없다.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도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어떤 내재된 악함 때문에 슬퍼한다. 반면에 우리는 행복의 요소가 전혀 없을 만큼 그토록 비참할 수는 없다. 우리가 천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고생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마도 같은 수의 축복에 둘러 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락의 위로의 요소가 없이 철저한 비참함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선과 악, 즐거움과 고통, 그리고 그 이상 사이에 만들어진 영원한 분리가 있다.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슬픔이 섞이지 않은 기쁨의 강이 흐르고, 지옥에서는 진노의 불꽃을 서늘하게 할 단 한 방울의 물도 없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이 영원함을 깊게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을 대비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영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 그러나 준비가 되었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람은 하늘에 보물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이방인이나 순례자처럼 그의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을 지나간다. 기도로, 성경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모든 것과 장소와 동료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는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겪은 어떤 감정을 누리게 될 것이다. - 존 라일

11. 하늘의 기쁨에 대해 생각하라

출처: *Spiritual Exercises of the Heart*, Reformation Heritage Books.

저자: 토마스 리드(1776-1841): 영국 평신도이며 저자. 영국 맨체스터 출생

역자: 스테반 황

태양과 그 광선에 의해 빛나는 모든 다양한 물체들을 보는 것은 눈에 즐겁다. 만약 신체의 눈이 그토록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눈은 틀림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의 선물일 것이다. 신체의 눈의 약점으로 인하여 먼 물체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베일을 지나 천상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볼 수 있다.

“주님, 이 영적 환상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날마다 영원의 경이로움과 천상의 순결함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목상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나는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 모든 공간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시는 그분의 영광과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거하는 분을 본다. 나는 그곳에서 은혜와 자비의 보좌를 보며, 그 보좌 가운데 죽임 당하신 어린양, 곧 죄인들의 친구요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다.

나는 거기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를 찬양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본다. 그들은 열정과 사랑에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인다. 그들의 뺨은 날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나는 거기에서 기쁨의 강물과 행복의 처소를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생각을 초월하는 많은 것을 본다. 그곳에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주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의 주위에는 흰 옷을 입은 모든 신실한 종들과 백성이 모여 있고, 그들은 손에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황금으로 만든 수금을 켜며 구속의 사랑을 노래한다. 이 은혜로운 구세주께 가까이 있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의 사랑의 총만함을 누리는 것, 그분의 미소를 즐기는 것, 그분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천국이며 지복이며 영광이다.

내가 이 높은 곳에서 내가 밟는 이 땅을 바라보니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는지. 그 때 그 신자는 전갈을 짓밟지만 고통스러운 찌르는 침을 느끼지 못한다. 살을 에는 듯한 병환이 모든 신경에 퍼질지라도 천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취될 때는 고통과 아픔이 무디어진다. 심지어 그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 넉넉히 승리한다. 그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죽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은 눈살을 찌푸릴지 모르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세상이 반갑게 웃을지라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온 영혼은 하늘과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오, 은혜와 진리의 영이여, 이 귀한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영원한 지복의

달콤함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주의 속량의 피의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위해 활력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대의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더 애착을 갖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더 힘쓰게 하소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진실한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과 구세주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목적에 더 힘쓰게 하소서”

무덤을 들여다볼 때, 나는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 죄의 무서운 결과, 만물의 헛됨, 거만과 교만의 끝을 본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춥고 음침한 망자의 저택 너머를 바라볼 때, 끔찍한 장면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 나는 그 부자를 본다. 그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살았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이후에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그의 뜨거운 혀를 서늘하게 할 물을 찾지만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다. 그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부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무덤은 화려함과 장엄함의 결말 장면이다. 거기서, 애지중지 사랑받던 몸은 이제 벌레의 먹이가 되어야 한다! 그곳에서, 보라색과 고운 모시옷으로 장식되었던 몸은 이제 부패로 뒤덮여야 한다!

나는 인간의 위대함의 수치스런 이 끝은 가장 멋진 세상 사람에게 이 땅의 것들의 허망함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사람이 이를 고려한다면 분명히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오, 생각이 없는 허황된 사람아! 아, 언제쯤 지혜롭게 될까? 열린 무덤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차갑게 그곳에 놓일 때 경종을 울린다. 그러나 일시적인 그 눈물은 어느새 지워지고, 모래 위에 쓰인 글처럼 모든 진지한 생각들은 다시 세상의 일들과 쾌락에 의해 급속도로 사라진다.

“주여,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허락하소서. 나의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소서. 인생처럼 변화무쌍한 기초 위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소서. 오, 제가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오, 주를 찾을 수 있는 이 때에 주를 찾게 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지금은 누구나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들 역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만물의 끝이 임박한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깨어 있게 하소서. 죽음의 때를 늘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게 하소서. 이는 예수님을 믿고 분명한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 세상을 둘러볼 때, 나는 거기서 무엇을 보는가? 복잡한 불행의 장면들이다. 아겔마다, 곧 피밭이다(행 1:19). 온갖 질병으로 가득 찬 거대한 병원과, 죽음의 영역에서 불멸의 상상하고 눈물의 계곡에서 행복을 꿈꾸는 정신병자들의 수용소를 본다.

나는 신실한 예언자들의 무리를 본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낫으로 만든 나팔을 불며, 이제

복음의 은빛 나팔을 분다. 그들은 죽어가는 비참한 군중에게 경중을 울리며 설득한다. 그러자 그 중 몇몇이 정신 나간 삶 가운데서 은혜를 통해 말씀에 사로잡힌다. 그러자 그들의 눈은 뜨이기 시작하고, 비늘은 떨어지더니 당황과 놀람과 공포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며 외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행 16:30). 그들은 은혜를 통해 구세주를 보고, 은혜를 통해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다. 그들은 은혜를 통해 복음을 사랑하고 순종한다. 그들은 이제 가련한 동료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한탄하며 어느새 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

“주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어찌 그리도 놀라운지요, 주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는 얼마나 엄청난지요! 당신과 떨어져 사는 삶의 광패와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세상의 길과 관습으로부터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하늘의 기쁨에 더욱 고정되게 하소서.”

지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라.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라.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리스도께, 이 땅의 교회의 기쁨과 근원이며 총회와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의 지복과 영광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라(히 12:23).